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8일 목요일 음 4월 27일 (4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호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C, 낮 최고 기온은 23~26°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various weather condition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the next two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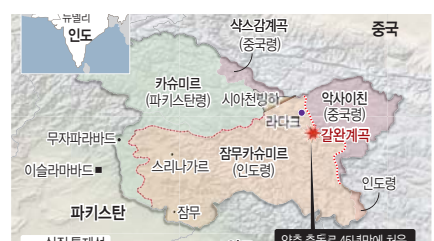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인도-중국 국경분쟁지에서 군사 충돌

45년만에 첫 사망자 발생

인도와 중국의 군사충돌로 45년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양측의 사망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충돌 지역 지도.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인도 육군은 전날 라다크지역 갈완계곡에서 중국군과 충돌로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기와 돌을 들고 싸웠다고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군 사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도 당국 관계자는 ANI통신에 "중국에서도 이번 충돌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5일 해질 무렵 순찰을 하던 인도 병력이 좁은 산등성이에서 중국군을 마주쳐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충돌로 사망자가 나오기는 1975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인도 정부 소식통은 인도군 지휘관이 떠밀려 강 협곡으로 떨어졌고 이후 지원군이 투입돼 양측 병력 600명이 맨손으로 싸우거나 돌과 쇠파대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히말라야산맥 서부 국경분쟁지에서 수주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이번 충돌로 고조됐다고 전했다.

아직 실종된 병력이 있어 사망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도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충돌에서 총격은 없었고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쇠파

연합수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목요담론



이성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COVID-19)로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백신 개발과 완치를 위한 치료제 개발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의 삶터는

고 있다. 도시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터전이며 사회활동, 일자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람, 상품, 자본이 집중돼 있다.

생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도시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둘째,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지표도 도시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도시지표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표도 도시계획의 기본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공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변화도 예측된다. 현재까지는 집이 일상생활로 피곤해진 몸을 쉬고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기능이 높았다면, 앞으로는 재택근무나 사무공간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마련되고 있는 제주의 주요계획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능동적인 대응,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래예측과 대응이 용이하도록 제주지역의 계획을 총칭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터가 보다 더 살기 좋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열린마당

더운 여름 폭염과 싸워 이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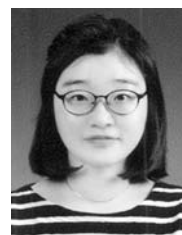


현승관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온은 작년(24.1°C)보다 0.5~1°C 높을 것이라고 한다.

열린마당

전자서명 하나로 민원발급 신청하세요



이지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각종 신청서에 대한 분석이었다.

발급 등 나머지 업무는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 민원업무에도 전자신청서를 도입하면 어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행정기관에 전자신청서 도입 시 장점은 첫째, 정확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산에서 확인되는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했을 때보다 오류가 적다.

둘째, 자원 절약이 가능하다. 매년 신청서를 복사해서 보관하는데 서식이 바뀐 경우 기존의 신청서는 폐기해야 한다.

전자신청서를 모든 민원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민등록 재발급처럼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가능한 업무라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민원업무처리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이 통장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신청서를 쓰기 위해 자연스럽게 펜을 들었는데 창구 앞에 설치된 태블릿에 전자신청서 확인 후 본인서명만 하니 간단하게 업무가 처리됐다.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은 전자서명으로 간단하게 발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 주민등록재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Green Bike Trek featuring various bicycle models, contact information, and a map of the store location.